

이달의 초점에서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치매, 여성노인, 노인의 성(性)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인간 정신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 치매



오종배
경기도립 여주
노인전문병원 원장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도의 정신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력을 현대의학은 뇌(腦, brain)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뉴론, neuron)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뇌신경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금방 듣고도 곧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며, 엉뚱한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들 앞에서 자존심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몸도 노화가 진행되면 기능이 예전만 못하게 된다. 관절염, 당뇨병, 심부전과 같은 병들이 노인들에게 많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간의 뇌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 바로 치매이다.

최근 치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데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과거에 노망이 들었다고 오해받았던 치매환자들이 의학의 발달로 제대로 진단되는 것도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된다.

치매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 치매의 증상은 다양하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만이 아니라 언어구사력, 계산력, 판단력, 공간지각력 등 인지(認知) 기능 전반에 이상을 보이게 된다.

기억력은 대개 최근의 기억부터 손상된다. 예를 들면 자기 고향이나 생일 등은 기억하지만 최근의 일은 잊어버려서 어떤 일을 해놓고도 모르거나, 몇 일전 들었던 얘기를 다시 묻기도 한다. 물론 치매가 진행하면 오래된 기억도 손상된

다. 언어구사력은 하고 싶은 말이나 물건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거나, 책을 읽어도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하기도 한다. 계산력도 떨어지는데 전에 잘 하던 돈관리를 못하고, 시장에 가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는다. 판단력, 방향각각이 떨어져서 길을 잃거나 자주 가던 곳도 찾지 못하고 심하면 집안 화장실도 못찾게 된다.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요리나 쇼핑이 어려워 지기도 한다.

치매환자는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등을 흔히 보이고, 이전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적어진다든지, 고집이 세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환각이나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는 등의 망상,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의욕적이었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거나 사교적이던 사람이 내성적이 되는 성격 변화도 많이 일어난다. 세수나 목욕 등 개인위생을 게을리하기도 한다. 실제로 환자의 위와 같은 이상행동이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한다.

치매에 대한 잘못된 상식 >> 치매를 단일질환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수많은 원인에 의해 정신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치매라고 한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나 예후가 확연히 다르므로 치매환자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 혈관성 치매, 우울증, 뇌출혈, 뇌종양, 영양 대사 장애, 호르몬 이상 등이 있다.

치매는 불치병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다. 환자의 가족들은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포기하곤 한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미리 겁먹은 탓이다. 그러나 현대 의학의 발달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많은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치매가 의심되면 해야 할 일 >> 우선 전문의를 통해서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제대로 진단받아야 한다. 많은 신경/정신계통의 병들이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한다. 치매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다. 이 중에서 혈관성 치매의 예방법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예방법과 같다.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하고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또한, 평소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PPFK**